

5·18 이후...2野 민생·경제 챙기기 경쟁

더민주·국민의당 '임 행진곡' 제창 법제화 한 목소리 경제·국민연금 등 TF팀 가동하고 노동시장 워크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6주년을 계기로 역점을 뒤엎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무산되자 내년에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당은 민생정책 분야에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만 치중할 경우 이념에만 매몰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우선, 두 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을 고수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제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법제화하기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표회의에서 "박 보훈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에게 하신 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지키지 않으려 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론분열 주범을 해임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하겠다"며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법제화하는 5·18 관계법 개정안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당은 다른 한편으로 '민생정당'의 모습을 서로 어필하기 위해 양보 없는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은 우선 20일 새누리당과 함께 3당

정책위의장들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해 상경례 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한국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두 당의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민주 정책위는 지난 17일 기재부 등 9개 정부부처의 차관급을 국회로 불러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긴급 현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조만간 경제총괄·국민연금·건강

보험·방송통신 분야 등 4개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민생현안을 쟁겨나갈 계획이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오는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먼저 찾아 경영진·노조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경쟁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경제·민생 사안의 현실이 엄중한 만큼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내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

부의 보고를 받은 뒤 경제상황을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고정 예산에 불똥이 떨어졌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4일에는 제6차 정책역량강화워크숍을 열어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관련해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26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초청해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책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박지경기자jkipark@

강기정, 12년 의정결산 '유종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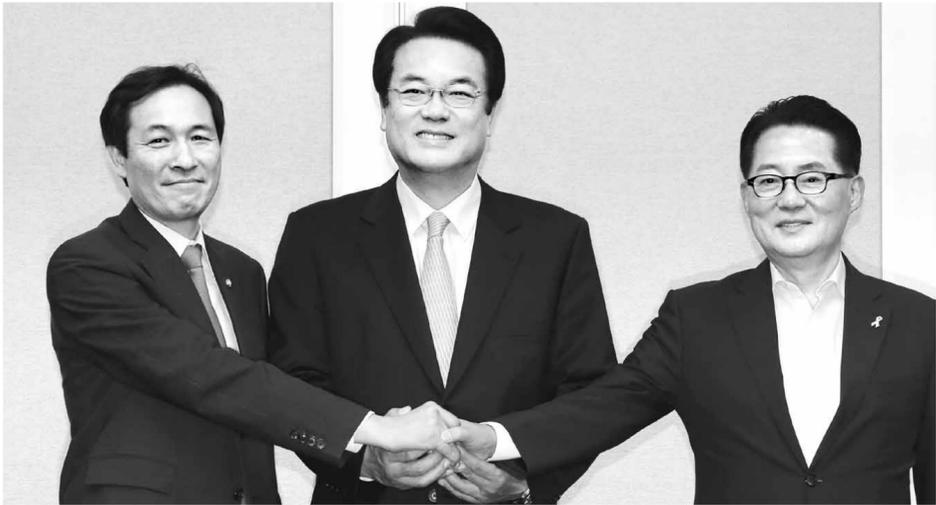
광주 시화마을 홍보관서 마지막 보고서

19대 국회 총료를 10여일 앞두고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강기정(광주 북구갑)의원이 19일 이례적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참석후 광주로 내려와 광주 북구 시화마을 홍보관에서 '격정 말아요, 그대!'라는 주제로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의정보고회는 강 의원의 12년간 발자취가 담긴 영상 상영과 보좌관 자녀들의 오키리나, 피아노연주,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4선 도전을 앞둔 강으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돼 선거조차 나갈 기회를 잡지 못한 그린



지라, 이번의 정 보고회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공천 배제를 통보받던 날 강 의원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5시간 6분동안 끝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원구성 잘해 봅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의에서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치닫던 새누리 내분 조정국면

오늘 중진연석회의...친박계도 숨고르기

비상대책위원회 및 혁신위원회 출범 후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파국으로 치닫던 새누리당 내분이 19일 잠시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돌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선산과 사찰을 찾으며 사실상 '정치적 집거'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복귀해 20대 국회 원(원) 구성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20일에는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키로 했다.

충남 공주 자택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중진연석회의를 소집해서 말씀과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게 순서"라면서 "빨리 원 구성을 해야 한다니 오후에 올라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리더십 타격으로 제기된 원내대표 사퇴설은 일축하면서 또 비대위원 확대 개편이나 일부 교체를 통해 친박계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역시 정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친박계 맞춤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중진 회동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분당 사태까지 거론되며 가파르게 고조됐던 계파 간 갈등은 당분간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내재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손학규·정의화 새판짜기 '들썩'

손학규 대선 앞두고 움직임

정의화 의장 창당 가능성 시사

여야 정치권이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세 개편론으로 들썩이고 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지형을 재편한 총선 민심을 바탕으로 여야 내부의 역학 구도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계파 갈등에 휩싸이면서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찌감치 '새판 짜기'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인파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여권의 친박(친박근혜) 보수 진영, 야권의 친

문(친문재인) 진보 진영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제3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도 진영의 3자 구도가 형성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분열이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탈당과 복당 논란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혁신위원회 선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결사체로 평가되는 싱크탱크 발족시킨데 이어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 주목받고 있으며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 중도 성향 여권 인사들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야권에서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서 집거해온 더민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 18일 '새판짜기'를 공론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5일 발간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여부는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여권 발전계개편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략적 구상을 앞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당이 주축이 되는 정계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기자 tuim@

국회 18개 상임위 유지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합의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20대 국회에서 기존 18개 상임위(전임 상임위 13+겸임 상임위 3+상설특위 2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3당 원내 지도부는 또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단(6월7일)과 상임위원장단(6월9일) 선출 시한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고, 여성가족위를 문광위에 통합하는 방안과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박지경기자jkipark@



대지, 급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 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